

연중 제 34 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주간

제1독서 : 2 사무 5, 1-3
제2독서 : 골로 1, 12-20
복 음 : 루가 23, 35-43

숲 정 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골로 1, 15)



왕이신 그리스도



왕수해 신부/전주 교리신학원장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 보라지!” 할만큼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의 예수는 죄수로 죽는 모습이었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왕좌에 앉은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얼마나 오르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요한 12, 28).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위에 높이 들리셔야 했습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3, 14-15).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 위에서 생명을 쏟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쏟아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스스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생물의 목숨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씻는 제물로서 제단에 바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야말로 생명을 쏟아 죄를 씻겨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레위 16, 11). 죄를 벗겨주고 씻어주는 것인 생명은 피뿐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많은 죄, 온 인류의 쌓이고 쌓인 죄를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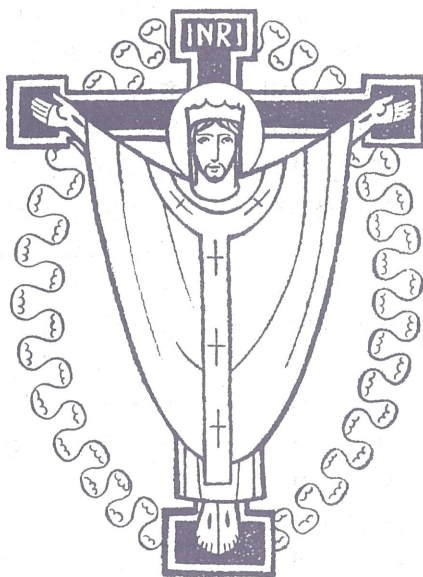
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죄를 씻어주는 생명의 물로서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의 지배하에 죽음에 묶여 있는 당신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당신의 생명인 피를 흘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이 왕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생명을 바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의 눈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인이며 힘없고 연약한 분이 아니라, 그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랑의 왕이심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부터 진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즉시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 가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왕이 이제 되었으니, 내가 십자가 위에서 임금이 된 오늘 당장 너를 지금 낙원에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임금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다짐합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백성인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성서를 열심히 읽고 또 읽도록 합시다.



여 명

IMF 1년

모 보 일(즈가리아)

1년전 우리 나라에 IMF(국제통화기금)라는 괴물이 들어 왔다. 이 괴물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를 뒤흔들어 놓았다. 환율(원/달러)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고 주가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완전고용·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세월이 좋을 때 얘기다. 강요된 실업과 도산으로 하루 평균 3천 7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직 가장들은 직장을 잃었다는 말을 못하고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산에 오르거나 여기 저기 방황하다가 지하철이나 역대합실에서 새우잠을 자는 노숙자가 생겨나기도 했다. 부부가 갈라서고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도 버리는 일까지 생기는 등 가정 울타리가 무너졌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하고 기술이 있어도 취업이 안된다.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현상이 심화돼 자포자기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95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 1만달러를 달성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섰다고 기쁨을 토했었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를 명분삼은 해외 나들이를 비롯 달러를 물쓰듯 한데서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냈고 경제관료들은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 IMF와 굴욕적인 자금지원협정을 맺었고, GNP는 92년 수준의 6천 9백 88달러로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쓰고 덜먹으며 살았다. 일본에 비해 3배, 미국보다 7배, 대만에 비해서는 30배나 어렵게 살고 있으며 1년전에 비해서도 14배나 어려운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전국 2천 5백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3분기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도 85%가 앞으로 6개월동안 소비를 지금보다 더 줄이거나 늘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수입이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무지막지한 공방전을 벌였던 대선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여·야간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분열과 쟁점만을 일삼는 바람에 국회를 한달이상 공전시켰다. 심지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시간을 호기로 삼아 '후원회'를 열었다니 한심스런 노릇이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 좋다면 '이대로'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치고 있거나 않은지 의심스럽다.

이제 곧 IMF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따져보기 위한 경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 여·야간에 서로 책임을 떠미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이 풀이 됐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현실을 들여다 보고 다시는 이 땅에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정책과 경제 살리기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부실, 정경유착, 과잉투자,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 불안정한 노사관계, 정부의 정책부실 등을 꼼꼼히 짚어야 할 것이다.

쉼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신앙을 찍는 사진사

교구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성지를 찾아다니며 교회의 역사와 신앙인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박인식(아우구스티노 어양동 성당)형제, 그는 사진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기쁨이 낫다르다고 말한다.

▶ 사진을 찍으신 지 오래 되셨지요?

제가 원래는 경기도 파주 출생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리남성여고로 내려와 수학교사를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지요. 그러면서 78년에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92년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68세입니다. 사진을 찍은 지가 어느새 30여년이 넘었네요.

▶ 사진전에서 입상하신 적도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사진공모전에 출품하여 여러 번 입선하고, 특선을 하기도 하면서 일종의 공명심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드러나는 명예나 작가라는 칭호는 어떤 틀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남들의 평가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서 제 나름대로의 신앙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교회 안에서 사진작업을 하시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엔 그저 단순히 사진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칭찬 받는 소위 멋진 작품사진들을 찍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느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소박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표현하는데 관심을 기우리게 되었습니다.

▶ 교회관련사진 자료들도 많으시지요?

순교성지나 각종 교회의 행사들을 기록한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성지조성때의 천묘식사진도 있고, 교회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

진들이 많지요. 사회복지단체나 성당 준공식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에 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찍은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크게 뽑아 불우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전해드리기도 하구요.

▶ 그 많은 자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좀 더 잘 정리해서 교구자료 전시관이나 순교자 박물관 같은 것이 생기면 기증하고 싶습니다.

▶ 특별히 좋아하시는 사진의 소재는 어떤 것인지요?

성지를 가더라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것들에 즐겨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 같은 계절이면 시리도록 맑은 하늘에 흰 구름과 십자가도 좋지요. 깨끗하고 순수한 자연의 모습들이 맘에 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주교님께서 성체를 나누어주실 때 성합에 비치는 신자들의 모습을 꼭 한번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성 서 주 간 행 사

연극 공연 및 영화 상영(십계)

◇ 일시 : 11월 26일(목) 오후 7시

◇ 장소 : 윤호관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998년 성령의 해

“제 일생에 언제 이런 시간이 또 오겠습니까?”

“희년과 이 희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로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 일생에 언제 이런 시간이 또 오겠습니까? 이 시간을 제 일생의 유일한 쇄신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 희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나누는 모임에서 한 어느 수녀님의 이야기이다. 임종을 앞둔 무의탁 할머니들을 모시고 사는 수녀님께서는 이런 체험을 나눠 주셨다. “할머니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의 손을 잡아 하느님께 넘겨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임종의 순간마다 그분들이 이제껏 저 온 모든 명에서 벗어나 하느님 안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된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희년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자유를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험과 깨달음에 대한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가 지난 일년동안 미사 때 바쳐온 본기도를 떠오르게 한다. “또한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불을 놓으시어, 세례와 견진 성사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만민의 복음화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불을 놓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 체험의 순간들, 성화의 순간들

은 있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희년을 준비할 수 없다(「제삼천년기」, 44항 참조)고 하신 교황성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불을 놓으시어 새롭게 태어나고픈 열망을 심어주시고,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게 하시면서 쇄신된 존재로 대희년을 맞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다.

성령의 그느르심 안에 살아온 지난 일년, 성령께서 내 안에 놓으신 불은 어떤 불이었으며, 그에 대한 나의 응답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분의 생생한 손길에 나를 맡기도록 하자.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나 자신이 먼저 “세례와 견진성사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고, 이로써 “만민의 복음화와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자.

--- 대희년 후보 고정란 원고 공모 ---

더욱 생생한 대희년 후보 고정란을 만들기 위하여 신자들의 직접 참여를 요청합니다. 생활 안에서 체험된 희년정신과 「새날 새삶」운동의 실천 과정을 담은 좋은 글들을 대희년 사무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정성껏 실어, 대희년을 향한 순례의 기쁨을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량 : 200자 원고지 4~5매

보낼 곳 : (143-220)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3-1, 2000년 대희년 사무국

☎ 460-7620, FAX 460-7630

기쁨과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1년 17개월 22일 남았습니다.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아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동동 성당 옆

☎ 한의원 (0653) 852-4666

약 국 (0653) 841-7217

기장, 신고, 양도, 증여, 상속,

부가, 이의 신청

- 교우 개업시 세무신고 세무 무료상담 -

세무사 이환영 사무소

세무사 이 환 영(아오싱)

사무장 이 중 명(시 문)

☎ (0652) 254-3346

253-3346~8

주식회사 세기공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 시공업
오수, 축산폐수, 정화조설계 시공

대표이사 양 기 해(분 도)

떡진구 우아동 3가 749-56

☎ (0652) 241-0530, 0196

FAX (0652) 242-8875

(휴) 011-659-3833

웅진출판 주식회사

21C 웅진학습 대백과+CD를

(초·중·고 대상), 웅진곰돌이

(언어·수)통합학습지

전북 총 사업본부장/탁경희(울리안나)

☎ (0652) 275-6273, 275-6279

휴 017-206-8791

구입문의나 교육사업 함께 하실 분 연락주십시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소중한 자원인 물을 아끼시다.

혹시 무의식적으로 수도물을 틀어 놓은 채 이를 닦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 않지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수도물은 1분에 11-13리터 정도가 흘러 나오는데 실지로 이를 닦을 때 필요한 물은 2컵정도면 충분합니다. 물 두컵의 분량은 많아야 500밀리리터 정도입니다.

결국 한번도 써보지 않은 깨끗한 물이 20-30리터 정도가 그냥 버려집니다. 세수를 할 때에도 대야나 세면기에 물을 받아 사용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1999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

때 :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윤호관

참석대상 : 제위신부님, 교구내 수도자 전원, 사목회장, 사목회 임원 전원, 본당 제단체장(구역반장, 레지오Pr. 단장 포함)전원, 교구내 기관 및 제단체장 및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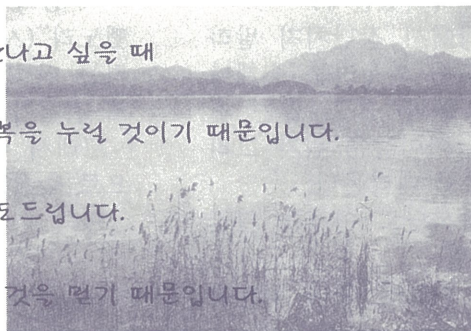
주차장 : 윤호관 옆 천변 주차장, 점심은 교구에서 제공합니다.

♥ 세계 인권 운동 단체 앰네스티를 후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금은 고문 및 사형폐지를 위한 인권보호운동에 사용됩니다.

(지부사무실 (053) 426-2533, 배영근 신부 (0652) 285-0041)

위령의 달에

주님,
제가 사랑했던 죽은 모든 이들을 만나고 싶을 때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뵈을 때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또한 기억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십이 (1320) 김병오



원 아 모 집

대상 : 1세부터~취학전자녀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종일 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 혜택 ④ 차량운행
접수 : 팔복 성모 어린이집
전화 : (0652) 212-1618

결혼상담소
좋은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리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287-3325, 288-3325
(후) 016-607-3326

명성제과제빵 기술학원

학력시대는 가고 전문기술자, 자격증시대
숙성반, 고등반, 주부취미반
군산, 장항, 서천 차량운행
☎ (0654) 451-6550
최 경 수(스테파노)
군산의료보험조합입구-경포초등학교앞은편

죽림리조트 유흥온천

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봉 근(바오로)
국 장 호(요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

천일석재 종합전시장

묘비석, 조형물, 건축물
전화상담 및 무료상담
대표 : 강 인 선(말셀로)
죽림온천 앞
전시장 (0652) 231-0310
공 장 (0653) 862-0310, 0814
F A X (0653) 862-0309

남 부 장 의 사

잔디, 묘지이장, 수의, 석관
임실 호남 장의 버스 주야 대기
최 창 식(켈리스티노)
문 정 옥(루 시 아)
남부시장내 수산시장 앞
☎ (0652) 284-4000
288-3530
(후) 011-678-3530

사목단상

모두가 다 선교왕

송 영 진 신부/팔봉선교 성당

“어서 에집트로 돌아 가거라”(출애 4, 19)
에집트로 가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자신없어
하던 모세의 심정으로, 그러나 모세의 지팡
이도, 대변인 아론도 없이 이곳에 온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영성체하는 신자 수가 두배로 늘어
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서 예산에 잡았던
제전비는 반년만에 바닥나버렸고, 성당도 이
젠 비좁아 보인다.

올해 초 교적을 정리하면서 세어본 초등부
어린이는 유치부까지 다 합해서 7명이었다.

그런데 지금 출석부에 이름이 적힌 어린이
는 29명이다. 작년에는 주일학교 교리 대신
에 축구공이나 차면서 함께 놀기만 했는데,
이제는 기도문이라도 하나씩 외우게 하고,
제법 주일학교 같은 틀을 갖추어간다.

선교왕 시상식을 한다면, 이곳 어린이들부
터 그 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 친구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서 함께 미사참례를 한다.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들에게 배
워야 할 것 같다. ‘하느님이 너무나 좋은 분
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선교가 아니겠는가?

나는 아이들에게 성당에서 장난치지 말라
고 잔소리나 하고, 기도문 외우라는 숙제나
내고, 시간없다고 함께 놀아주지도 않는 재
미없는 본당신부인데도,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친구들을 자꾸 데려온다.

처음엔 두명뿐이던 복사단도 이제는 열한
명, 축구팀 하나가 생겼다.

중·고등부 경우에도 처음엔 불과 몇명밖

에는 미사참례를 하지 않았다. 썰도 시도해
보고, 교리수업도 하고 그랬지만 별 성과가
없었는데, 학생회 조직자체를 레지오 마리에
로 바꾸어서 매주 주회를 하면서부터는 분위
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학생들 스스로 단원수를 늘려서, 몇달 뒤
에는 소년 프레스디움이 두개가 되었고, 예
비신자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레지오 마리아는 청소년들에게 잘 안 맞을
것 같았는데, 또 목주기도도 지루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된 편
견이었다.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하는 목주기도가 재
미있는듯, 열심히 하고 있다.

선교는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로 그 공동체
에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과 공동체
가 함께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일 때 이루어
지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타종교세가 강하고, 원래 주민수도
적은 이런 곳에선 선교실적을 숫자로 단순화
시켜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함께 하
는’ 공동체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우리는 몹시 기
뻐노라”(시편 122, 1) 그 기쁨을 삶으로 증거
하는 일, 그것은 개인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
체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팔봉성당 신자 전체를 선교왕
으로 추천한다.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 1998년 11월 22일(일)오후 2시
장소 : 광주 가톨릭 센터
(광주시동구금남로)
전화 : (02) 3673-2525
대상 : 외방선교를 지망하는 고교생
대학생, 일반(미혼남,녀)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11월 22일(일)오후 2시~5시
(매월 넷째주일)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랑진
본원
전화 : (0527) 52-4241
* 성령세미나를 참여한 분들로써 더욱
성장된 성령안의 생활을 갈망하시는
고졸이상의 미혼여성 환영합니다.

결혼상담소

좋은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287-3325, 288-3325
(휴) 016-607-3326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교구소식

- ◆ 레지오 단원교육
 - 때 : 11월 23일(월)
 - 장소 : 신동성당
- ◆ 새사제 농촌공소 방문
 - 때 : 11월 26일(목)
 - 출발 : 오전 9시
- ◆ 공소회장단(지도자)연수회
 - 때 : 11월 26일(목)~27일(금)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 이득재 신부 주소 변경 (250-800)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5리 106번지 군중사제관
- ◆ 고3 피정
 - 때 : 11월 28일(토)~29일(주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 레지오 평가회
 - 때 : 11월 28일(토)~29일(주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 혼인강좌
 - 때 : 11월 29일(주일)
 -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 센터
- ◆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11월 27일(금)
 - 장소 : 전동성당

권해드립니다

일곱가지 성사

헨리 리버사트/136쪽 /4,500원
성사는 은총의 통로요 하느님과 천교의 길이며 성화와 일치의 수단이다.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 시키시는가 깨닫게 해준다.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야기

스즈키 히데코/ 256쪽/ 5,500원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죽음의 이별,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다. 죽음을 통하여 더욱 큰 사랑의 일치를 이룰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묵상서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살레시오수도회(남자)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인보성체수녀회	(062) 512-0332
동정성모회(전주, 이리)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금암동성당 수녀원	(0652) 253-0325
사랑의 씨튼 수녀회	매월 첫째주 토 오후 4시	동산동성당 수녀원	(0652) 212-3233
인보성체수도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 284-3231
바오로딸수도회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바오로딸 서원	(0652) 252-3398
살레시오여자수도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정읍 연지동 성당수녀원	(0681) 533-257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삼천동성당 수녀원	(0652) 226-3487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호성동성당 수녀원	(0652) 244-0094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	매월 둘째주 오후 2시	이리 창인동성당 수녀원	(0653) 858-4724

침 대 쿨 전 시 장

(이 레 가 구)
· 싱글 : 95,000원
· 더블 : 130,000원 부터
· 쿨 : 220,000원
전주점 (0652)211-8716~7
익산점 (0653)843-2676
군산점 (0654)465-2841
대표/김미숙(안젤라)

김제원광한의원

한의학박사 이순호(루치아노)
정연숙(루치아)
김제시 요촌동 김제초등학교 앞
☎ (0658) 547-3260
546-3200

김장용 절임배추

상품1포기(절임시 24kg)2,400원
중품1포기(절임시 14kg)1,500원
판매 : 11월 24일부터(화,목,토)
완주군 비봉면 천호동/천호공소 영농조합 법인
대표자 송 인 철(루 가)
강 명 수(안토니오)
☎ (0652) 263-6341

高品質 웨딩

메종프랑세스 개업 1주년 기념

다이어트 50% Sale
웨딩드레스+턱시도=250,000원부터
☎ (0652)251-1210, 1211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간(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상 바오로)
☎ 225-5252. Fax 223-5332

명성제과제빵 기술학원

학력시대는 가고 전문기술자, 자격증시대
숙성반, 고등반, 주부취미반
군산, 장항, 서천 차량운행
☎ (0654) 451-6550
최 경 수(스테파노)
군산의료보험조합입구-경포초등학교맞은편

김제치과 의원

송 기 상(골롬바노)
김 성 자(골롬바)

김제시 요촌동 금만사거리
☎ (0658) 544-2875~6
FAX (0658) 544-2876

천일석재 종합전시장

묘비석, 조형물, 건축물
전화상담 및 무료상담
대표 : 강 인 선(말셀로)
죽림온천 앞
전시장 (0652) 231-0310
공 장 (0653) 862-0310, 0814
F A X (0653) 862-0309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너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 모임 : ① 동그라미 불영회 - 23일(월) 후 8시
② 성심부녀회 총회 - 25일(수) 전 10시
③ 중·고등부 교리교사 총회 - 28일(토) 후 7시
④ 전례부, 테니스회, 청년회 - 29일(주일)
- 성전기금 마련헌금 : 오늘 2차 헌금 있음
- 사목회 정기총회 : 오늘 교중미사 후, 사목회 회원, 구역(반)장
형제회 회장, 레지오 단장, 제단제장 참석요망
※ 참석 못하시면 위임장을 내시길
- 유아세례식 : 24일(화) 저녁미사 후
- 성서와 교리교실 :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7시 30분
- 잔회예절 : 25일(수) 저녁미사 중에
- 축! ME교육 : 강명신 부부, 이덕원 부부, 김두철 부부, 박섭 부부
- 여성 제단제 임원모임 : 27일(금) 낮 12시
- 병자방문 : 27일(금) 후 2시, 전달대 마을 미사는 후 4시 30분
- 형제회 회장 전체모임 : 29일(주일) 교중미사 후
- 예비신자 교리 : 매주 수, 목, 주일에 있음.
- 금주 전례 : 해설 - 백정안, 독서 - 배문수(스테파노) 부부
봉헌 - 안승길(알렉시오)가정
- 차주 전례 : 해설 - 김준수, 독서 - 정해준(로마노)부부
봉헌 - 엄재윤(토마스)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887,920원 □ 교무금 : 2,950,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274-9261 사 무 실 2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274-9260 수 너 원 274-9262 사목회장 유 준 웅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① 예비신자 환영식 - 차주(29일)공식미사 후, 입교신청 - 사무실
- ② 가두선교 - 오늘 공식미사 후, 많은 기도와 참석바람
- 금주 모임 : 애명회 - 공식미사 후, 1회의실
- 주간 모임 : ① 그린청년불영회 - 24일(월) 후 7시
② 엠마우스회 - 25일(수) 후 7시 ③ 성경기도회 - 25일(수) 후 8시
- 차주 모임 : 방주회, 청년공동체 모임 4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 :
24일(화) 전 10시, 윤호관, 참석대상 - 신부님, 수녀님, 사목회임원,
제단제장, 구역반장 5. 유아세례 : 26일(목) 후 7시 30분, 사무실에
신청바람. 6. 환자 봉성체 : 27일(금) 후 1시, 수녀님
- 교3피정 : 28일(토)~29일(일), 나바위 피정의 집
- 조당자 합동준배 : 12월 3일(목) 후 7시 30분, 사무실에 신청바람.
- 성탄 판공 : 29일부터, 매 미사후(공식미사 제외), 성사표배부 -
구역반장 10. 축! 교구연도대회 1등수상 : 구세주의 모후Cu,
3등 - 사도들의 모후Cu.
- 축! 혼인 : 오늘 후 2시, 성당 2층(대성당)
신랑 - 이충용의 1남 이현문(바오로)
신부 - 안형준의 5녀 안현경(마리아나)
- 독서 : (새벽)금주 - 기찬서, 강은영, 차주 - 장수택, 박영순
(공식)금주 - 신국중, 김덕남, 차주 - 김병균, 박구자
- 미사 안내 : 금주 - 하자없으신 모후Pr, 차주 - 원적없으신 모후Pr.
- 주자 안내 : 금주 - 화해의 모후Pr, 차주 - 다윗의 탐Pr.

□ 지난주 봉헌금 : 1,868,520원 □ 교무금 : 1,880,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288-3872 사 무 실 2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너 원 281-0441 사목회장 최 공 업

◎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리다.

◎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선교하는 용머리 공동체!

- 금주 모임 : 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 차주 모임 : ① 요셉회, 사라회 - 29일, 공식미사 후
② 성모회, 성심회 - 12월 2일(수) 미사후
③ 사목회 - 12월 2일, 후 7시 30분
- 구역미사 : 25일(수) 후 7시 30분 까치맨션 101/917호
- 교3 피정 : 28일~29일, 나바위 피정의 집
※ 부모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혼인 강좌 : 29일(주일) 전 9시 30분, 가톨릭 센터
※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99년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 : 24일(화) 전 10시, 윤호관
- 봉성체 : 12월 3일, 전 10시 ※ 미리 신청하세요.
- 성체강복 및 성시간 : 12월 4일, 후 7시 30분
- 성서 공부 : 매주 금요일, 후 2시 30분~4시 30분
- 성전신축 재신림 : 심영배, 계은희, 최홍규, 송형순
이영희, 최인범, 노민자, 황희상 합계 - 315만, 누계 - 4,362만
※ 감사합니다.
- 차주 전례 : 해설 - 정희수, 독서 - 김해일, 이강윤
- 청소 봉사 : 5구역 전체

□ 지난주 봉헌금 : 1,433,450원 □ 교무금 : 1,475,000원

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구
보좌신부 226-0443 수 너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영 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 누계 - 899,706단

◎ 본당 전화번호부를 발행합니다. 사무실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
인하여 주시고, 광고도 접수중입니다.

- 금주 모임 : ① 승리의 여왕 Cu - 전 9시
② 구역(반)장 준비모임 - 27일(금) 전 10시 미사 후
- 축! 영세 : 21일 세례 받은 형제 자매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성숙된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 신청 바랍니다.
※ 선착순 - 100명, 접수 - 사무실
- 금년도 교무금은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고, 미납된 신축헌금(공사비,
미지불)은 속히 완납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 2,500,000원(8세대)
- 유아세례 : 28일(토) 후 4시
- 미사시간 안내 : 주 일 - 전 6시, 9시, 10시 30분, 후 7시
토요일 - 후 3시(어린이), 5시(중·고생), 7시(특전)
평 일 - 월~금 전 6시(새벽미사)
화, 목 : 후 7시
수, 금 : 전 10시
- 금주 전례 : 해설 - 이종표, 독서 - 김용만, 김은숙
봉헌안내 - 김광년, 백명희 부부
- 차주 전례 : 해설 - 이한은, 독서 - 김용만, 김은숙
봉헌안내 - 김상권, 이귀임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801,300원 □ 교무금 : 3,041,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너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기뻐하며, 주님의 집에 가리다.

- 금주모임 : ① 사목회 워크샵 - 낮미사 후, 수류 교육관
② 예비신자 성지순례 - 낮미사 후, 천호성지
-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 : 24일(화), 전 10시, 윤호관
- 예비신자 교리 : ① 화·수반 : 24일(화), 25일(수) 후 8시
② 수·목반 : 25일(수), 26일(목) 후 8시
- 성가 연습 : 24일(화) 후 8시
- 구역 미사 : 27일(금) - 전입가정 축복식
- 판공 성사 : ① 초등부 3, 4학년 - 28일(토) 후 2시 30분
② 전신자 판공 - 29일(일)부터 시작 - 매 미사 전, 후
③ 초등부 5, 6학년 : 12월 5일(토) 후 2시 30분
④ 중등부 : 12월 12일(토) 후 4시 50분
⑤ 고등부 : 12월 19일(토) 후 4시 50분
- 교3 피정 : 28일(토)~29일(일), 나바위, 사무실에 신청 바람.
- 차주 모임 : 성모회, 구역(반)장 회의 - 낮미사 후
※ 구역별 대립한 가정 순회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청소 봉사 : 28일(토) - 신비로운 장미
- 폐품 정리 : 28일(토) - 평화의 모후
- 화단 정리 : 28일(토) - 바다의 별
- 금주 전례 : 독서 - 김정훈, 백복순, 봉헌 - 이영희, 정향란
- 차주 전례 : 독서 - 이원길, 이유자, 봉헌 - 김영국, 천영혜

□ 지난주 봉헌금 : 1,082,910원 □ 교무금 : 2,238,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 5,805,000원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너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건

◎ 오늘 본당을 위한 2차 헌금 있음

◎ 예비신자 인도에 총력을 다합니다. 당신은 예비신자 누구를 봉헌
하셨습니다? 성탄 전까지 1인 1명 이상의 예비신자를 발굴하여
주님앞에 봉헌합니다.

- 지난주 예비신자 봉헌 하신분 : 임은선(안나) - 3명, 황예성(세실
리아) - 3명, 신옥순(방지가) - 2명, 조정일(스테파노) - 2명, 임혜
건(미카엘) - 2명, 신복래(루시아) - 1명, 전순자(림바니아) - 1명,
최규석(스테파노) - 1명, 김교은(로마노) - 1명, 박길남(율리안나)
- 1명, 최영숙(엘리자벳) 1명, 김중재(프란치스코) - 1명
※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 드립니다.
- 금주모임 : 푸리아 - 25일(수), 전 10시 3. 성서 교리교실 : 매주
화 전 11시, 후 8시 ※ 바로 알고 바른 행함을 위한 - 교리교사 양성반
- 교구장 사목교서 연수 : 24일(화), 전 10시~후 4시 30분, 윤호관
- 유아세례 : 28일(토), 후 3시
- 파티마(청년)성가대 임원개편 : 단장 - 정성원(요한)
부단장 - 김정환(율리아노), 고미연(요셉파나)
총무 - 이수진(율리아), 지휘 - 임신희(쁘리실라)
고문 - 김용복(아우구스티노) ※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 이웃사랑기금 : 8일부터 15일까지(1,096,000원)
- 축! 혼인 : 28일(토), 후 1시
신랑 - 김백호(모이세), 김영혜(테레사)의 2남 김훈(스테파노)
신부 - 송관진, 한정자의 5녀, 송금선
-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 거정소라A 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233,360원 □ 교무금 : 2,208,000원

□ 평신도주일 2차헌금 : 555,480원

쉬고 있는 교우들께 숲정이를 전달합니다!